

mannasem
NEWS LETTER

2018.10



희망합창단 창설

노숙인 20여명으로 구성된 '희망합창단'이 창설되었습니다. 실직, 가족해체, 주거지상실 등으로 거리생활을 하는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의 우울증 완화 및 자존감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일 금요일에 첫 연습을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소리로 마음껏 노래를 부르다 보면 하루의 고달픈 일상도 어느새 잊게 되고, 노랫말이 가슴에 들어와서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찝통 같은 폭염이 계속되어도 합창연습을 하는 시간만큼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돌아오는 12월 18일 합창발표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는 만나샘 희망합창단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땀 흘리며 자활을 꿈꿔요.

만나샘에는 매월 30여명의 노숙인들이 급식보조, 환경미화, 거리아웃리치보조 등 특별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내 무료급식 보조 역할은 대중음식점에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조리, 설거지, 식기관리 등 기초단계과정부터 훈련하여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시설청소, 거리환경미화 활동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근로의욕은 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근로가 어려운 노숙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배정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회복되고 근로의욕이 향상된 사람들은 좀 더 수입이 많은 민간일자리를 찾아가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은 조금씩 저축 하면서 자활을 꿈꿔봅니다.

올해에는 무료급식 팀에 새로운 식구가 늘었습니다.

1일 2식 230여명의 거리노숙인에게 연중무휴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데 조리사 1명과 15일 간격으로 근로자가 변동되는 특별자활근로인력으로는 급식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용산구청 사회복지과와 일자리경제과의 배려로 만나샘 무료급식사업팀에 조리보조 인력으로 공공근로 2명이 편성되었어요. 조리보조 경력이 있는 공공근로 인력이 연간 11개월 지속적으로 투입됨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무료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 단위로 근로인력이 변동되는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인력보다 근로의 질이 높고 조리사와 호흡을 맞추는데도 훨씬 수월해 졌습니다. 만나샘 식구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동작업장을 오픈했어요.



하루에 만나샘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130여명입니다. 서울시 일자리나 공공근로, 민간일 자리를 얻지 못한 대부분의 노숙인은 이른 새벽부터 인력사무실로 나가서 일 자리를 찾습니다. 나이 들고 아픈 곳이 한두 군데 있는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 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 좋게 이틀을 일한다 해도 나머지 5일은 갈 곳도 오라고 하는 곳도 없이 거리에서 시설로 오가며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다가 저녁이면 지쳐서 잠이 듭니다.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임가공 일거리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월10~2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도록 일거리를 제공하여 취업활동준비와 사람의 체면유지에 도움을 줌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생활리듬 회복, 근로능력 향상, 사회성 향상 등 근로자세가 확립된 사람은 일 자리를 알선하여 경제적 자립으로 노숙과 쪽방을 오는 노숙 회전문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시설 내 공동작업장 공간 마련을 위해서 만나샘 사회복지사들이 창고를 정리하고 페인트칠을 하며 맘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10여명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6월 20일부터 공동작업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2년여 작업 공간 마련을 위해서 고민하며 준비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10여명 정도 소수지만 함께 모여서 작업하며 용돈을 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을 조립하는 성○○의 소감을 글로 적어봅니다.

"숙달되지 않는 사람은 하루 2천 원 정도 수입이 되지만 3개월 정도 숙달이 되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 금전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함께 모여 일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잘 하느니 잘 못하느니 서로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공정한 잘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만나샘은 점심밥이 제공되니까 밥 먹는데 눈치를 보지 않아서 좋다."

"한가위" 온정을 함께 나누며



2018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명절지원사업 지원금을 통해 125명의 노숙인과 함께 온정을 나눴어요. 가족과 단절되어 홀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노숙인과 함께 추석명절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명절분위기를 느꼈어요.

“명동정”, “한국의집”에서 격조 있는 음식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안시성” 영화관람, 남산골한옥마을탐방 등의 문화체험과 옷놀



이, 투호대회 등 전통놀이를 하면서 비록 고향은 찾아가지 못하지만 만나샘과 함께 추석을 보내며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식당 종업원들이 서빙을 해주는 정갈하고 맛있는 고급음식을 먹으면서 감격했다.”,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니까 너무 좋았다. 영화를 볼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기초교육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만나샘에서는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컴퓨터 기본사용법이나 스마트폰 활용 등 기초교육을 통해 그들이 직접 정보를 습득하거나 구직활동을 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조작도 어려워했지만 현재는 이메일작성이나 스마트폰에서 날씨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기기활용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이 되었어요



노숙, 10여년 먼 길 돌아 강북구 수유동에 새 보금자리를 폈어요. 이사 가던 날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살던 정○천(56세)님의 이사집이라고는 1톤 포터에 작은 옷 가방 1개와 만나섬에서 지원하는 세탁기1대, TV1대가 전부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연신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실직을 하고 노숙과 시설보호, 쪽방·고시원 생활 10여년 사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때로는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특별자활근로, 거리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한 서울시일자리, 일용근로 등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일했다."

적은 수입이지만 한푼 두푼 열심히 모은 돈으로 금년 5월 11일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이 집에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다시 거리로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그의 이사를 도우려고 함께 동행 했던 동료 노숙인 김○수, 구○회는 '집이 정말 깨끗하고 교통도 좋다.'고 하면서 무척 부러워했지요. 정○천님이 모델이 되어 또 다른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깨끗하고 교통도 좋다.'고 하면서 무척 부러워했지요. 정○천님이 모델이 되어 또 다른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과 만나샘,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노숙문제가 사회문제로 가시화된 이래, 심리사회적 회복, 일자리, 주거는 노숙인의 탈노숙을 위한 삼각대로 거론되어 왔다. 이는 노숙이 실적으로 주거비를 낼 수 없는 경제적 상황만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노숙화 과정과 노숙생활 중의 학습된 무기력, 정신건강의 문제 등과 결부된다는 생각, 그리고 회복이후 자립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독립비용을 모아 성취되어야 한다는 자활의 개념에 기초한다. 이러한 과정이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노숙을 특징짓는 '거주할 곳이 없는' 문제는 우선은 노숙인복지시설이라는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상식처럼 되었다.

노숙인 복지사업에서 시설 중심의 대책은 탈노숙 목표 달성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시설중심 대책의 전환은 오랜 기간 화두가 되어 왔다. 노숙인 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거리에서의 노숙과 같은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시설생활 중 근로와 저축 같은 개인적 노력으로 독립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주요이유였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주거비가 비싸고 주거복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노숙인의 독립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이 비어 있는 한, 시설보호는 출구가 없는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남기철, 2009). 이러한 비판 속에서 2007년부터 단신성인 매입임대주택 300호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지원이 시작되어 지난 10여년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노숙 상황을 탈피한 노숙인은 서울지역에만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7). 많은 노숙인이 무수히 반복되는 자활의 실패를 보이는 가운데 임대주택에 진입한 사람들의 안정적 주거 유지율이 거의 95%에 이른다(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6)는 결과는 안정된 주거 제공이야말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노숙인들이 '노숙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자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노숙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유지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즉, 자립생활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이다. 주거유지능력은 임대주택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과 생활을 유지할 자기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된다(노숙인 지원주택 입주민의 거주 경험, 서정화, 발췌) 우리 만나샘의 매입임대주택지원 사업은 노숙을 경험한 주거취약계층의 탈노숙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들이 지역주민과 어울려 사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와 입주자격은?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며, 입주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을 "입주대상자"라 하며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쪽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③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이다.

「만나샘 이모저모」



공동작업장소개, 취업상담
(*18 취업취약계층일자리박람회)



여름철 무더위 생수제공
(폭염대비특별보호활동)



소방합동 피난훈련



응급구호 심폐소생술



먼지야가라~
(삼성SDS제일기획)



서울역 멋쟁이 만들기
(문종훈미용사)

♡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 ♡

자원봉사자(개인)

강○운 김○김 김○훈 이○숙
 문○훈 마○경 이○혜 이○석
 유○진 이○윤 유○우 유○서
 안○진 조○선 장○전 장○운
 최○호 한○석

BelinHoakim Ingrid Jung Candace
 Sarah Anitalikaled Corteza Farchana
 Deepali Hoa Julius Nicol Rosie
 Paul Shaheena Uddin

자원봉사자(단체)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삼성SDS제일기획CI그룹
 서울지방우정청
 성남교회
 한국외교협회기독교인회
 한국수력원자력시니어직능클럽
 (사)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후원자(금품)

김○욱 김○미 김○근 김○향
 박○숙 성○사 신○진 이○열
 이○주 이○희 이○선 임○남
 장○선 장○정 최○숙
 사단법인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용산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방우정청
 주빌리교회

후원자(물품)

삼성전자㈜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역쪽방상담소
 용산푸드뱅크
 한국수력원자력시니어직능클럽
 사)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

(2018. 1~10월 기준)

구분	이월	수입	지출	잔액
지정후원금		5,000,000	2,514,730	2,485,270
비지정후원금	1,029,690	3,864,147	4,427,584	466,253
합계	1,029,690	8,864,147	6,942,314	2,951,523

후원안내

우리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큰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530401-01-130468

CMS후원 002801-04-109863

◎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인정만나샘

※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가입서

- ◆ 후원자 :
- ◆ 주 소 :
- ◆ 전 화 :
- ◆ 휴대폰 :
- ◆ 후원계좌(CMS) : _____은행
계좌번호 : _____

- ♥ 후원금
- 2,000원 5,000원
- 10,000원 기 타

※ 홈페이지 CMS가입신청을 통해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http://mannasem.org>

자
의
선
정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동자동) 04324
02-757-7595

만나샘홈페이지 →